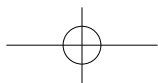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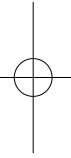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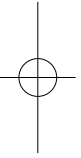


함께 쓰는 성폭력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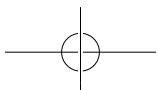


함께 쓰는 성폭력사전

동의 · 위력 · 강간문화 · 성인지감수성



Co-writing Dictionary of Sexual Violence





들어가기 전에	7
동의	11
위력	27
강간문화	43
성인지감수성	55

들어가기 전에

2018년 2월, 각계각층에서 ‘미투’라는 말하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용기는 검찰, 문화예술계, 정치권, 학교 등 사회 전반에 동심원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성폭력이 결코 우발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님을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성차별이 만연한 현실, 성폭력이 용인되는 현실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고립되어있었던 성폭력 경험은 모두의 경험으로 연결되었고, 성평등한 사회정의를 촉구하는 선언과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갔습니다.

미투운동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2년을 채워가는 시간동안 얻은 것도 많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을 보며 성폭력 피해자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하고 은폐하는 성별고정관념과 통념들, 그리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미디어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성폭력 사건 보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행을 들어 피해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이 잘못된 통념이라는 인식도 널리 퍼졌습니다.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청도지사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승리의 경험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이 시민사회와 교육, 미디어, 법과 제도 곳곳에 스며들어야 성폭력이 중단된다는 것,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를 일상으로 되돌려놓고 변화의 주인공으로 바로 세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변화의 물결이 얼마나 많은 곳에 닿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투운동은 줄곧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성폭력을 공론화해왔지만, 성폭력을 개인 간의 다툼으로 폄훼하거나 남녀 간에 있을 수 있는 일로 보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잇단 미투를 통해 여태까지의 운동장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깨닫는 대신 피로감을 느끼고, 이것이 ‘남녀갈등’을 조장한다는 움직임도 거셨습니다. 충분히 ‘피해자다운지’를 근거로 ‘진짜 미투’와 ‘가짜 미투’를 판단하고, 성폭력의 주요한 원인인 성별권력에서 ‘성별’을 지우기도 합니다. “‘미투’는 고위층 권력자의 권력남용문제”라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이러한 시각들은 여성들이 경험으로 체득한 문제의식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여성들이 만나는 가족, 친구, 애인, 직장동료들의 인식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성폭력에 관한 한국사회의 상식은 이제 단순히 “성폭력은 나쁜 짓이다”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위는 성폭력”이라는 구체적인 슬로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별 사례에 적용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였습니다. 2018년 한해 미투운동을 계기로 수년, 수십년 전의 사건을 꺼내어 상담소의 문을 두드린 내담자 중에서는 충분히 지지받고 연대하며 싸워나간 내담자들도 있었지만 주변의 부정과 은폐, 비난으로 다시 고립된 내담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강간하고 이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하고 ‘거래’하는 한국사회 시스템을 ‘강간문화’라 하자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반발이 튀어나왔습니다.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에 익숙한 귀를 씻어내고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과 사건의 맥락을 살필 수 있는 관점으로서의 ‘성인지감수성’은 소위 “여자 편드는 마법의 언어” 줌으로 조롱받았습니다. ‘동의 없는 섹스는 강간’이라는 말에는 “섹스하기 전에 계약서라도 써야겠네”라며 응수합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온갖 ‘갑질’에는 공감하지만, 남녀사이에는 ‘위력’이 아닌 모종의 감정이 있었을 거라 의심합니다.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무맥락적으로 납작하게 쓰이기도 하는 이 개념들이 실은 여성들이 일상 속 성차별·성폭력 경험에서 길어 올린, 성평등한 변화를 지향하며 만들고 사용해 온 언어라는 말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2018년 한 해 미투운동이 제기하고 재발견했던, ‘강간문화’, ‘성인지감수성’, ‘동의’, ‘위력’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여성 시민들의 경험과 생각을 모아 정의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110명의 여성시민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말모으기로 892개의 생각을 적어주셨고, 두 차례의 이야기모임을 통해 보다 풍성한 경험과 맥락을 전해주셨습니다. 상담소의 역할은 여성시민들의 말에서 행간을 찾고 짚고 긴 이야기들을 각색하고 엮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책은 제목처럼 여성시민들과 ‘함께 쓴’ 사전입니다. ‘폭행·협박을 동반한 강간·추행’과 같이 협소한 법적 성폭력 개념을 벗어나기 위해, 성폭력과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일상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상상하고 논의하는 데에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이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은 여성시민들께서 남겨주신 892개의 문장으로 쓰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이 문장들을 재구성하고 엮었습니다.

2019년 10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함께 쓰는 성폭력사전

동의 · 위력 · 강간문화 · 성인지감수성

동의

동의는 ‘약수’이며 ‘연락’입니다. 누군가 약수를 하자며 손을 내밀었을 때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약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서로가 연락을 원하고 연락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의’는 의사소통의 기본이며 필수입니다.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제안과 대답이 성립되어야 동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로소 상호간의 소통이 시작됩니다. 동의는 관계맺음에서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일종의 계약과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권력을 비롯한 여러 권력관계가 놓여있는 현실에서 동의는 ‘네’ 또는 ‘아니오’ 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동의를 하고 동의를 읽어내는 것은 ‘네’와 ‘아니오’ 사이에 있는 회색지대를 파악하는 사회적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현실 속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이의제기 하지 않는 것 전부가 동의는 아닙니다. 동의는 ‘나는 오만한 내 것이고 스스로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동의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어떠한 위력이나 속임수가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여야 하고, 흔쾌하고 적극적인

동이의사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이란, ‘동등한 관계’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서로’ ‘동시에’ 같은 것을 원하고 제안하며 수락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위치에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외부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관계성, 권력 등에 의한 간섭을 받은 채 이루어진 결정, 강요된 동의는 동의가 아닙니다. 절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동의는 치열하고 섬세한 합의의 결과임과 동시에 나의 욕구를 솔직하게 잘 드러내고 상대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행위자가 행위과정에 모두 개입하여 함께 행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우리는 말, 표정, 몸짓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하고 맞춰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짐작하거나 예단하지 않고, 같은 속도와 방향, 생각을 만들기 위한 ‘중간대화’를 해야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이는 그 순간의 의견일 뿐이고, 그 의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차를 대접하고 마시는 것과 같이, 차를 끓인 뒤에라도 상대가 마시기 싫다거나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차를 마시게 하면 안됩니다. 동의 의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며,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1회적 절차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동의는 매 순간 도달하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관계의 조건입니다. ●

자유지

자발적이고 흔쾌하며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동의이다. 서로 원하고 능동적이었을 때, 성적 접촉을 할 때에 서로 행복하고 이후 서로 좋다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때 동의에 기초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성적 접촉을 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괜찮은지를 적극적으로 묻고 의사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동의의사는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회유, 강압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하거나 동의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동의가 아니다. 싫다는 의사표현을 단 한번이라도 했다면 동의가 아니다.

상대방도 나도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해있어서 능동적이고 이성적인 상태로 동의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동의가 아니다. 싫다고 하며 몸을 밀어냈음에도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힘을 써서 특정행위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밀어내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빼는 등, 이 상황이 불편하고 원하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싫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해도 행동이 중단되지 않기도 한다. 성기결합섹스를 하지 말자고 말했음에도 완력을 써서 삽입을 하면서 ‘괜찮다’고 회유를 계속하면 싫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 이 또한 동의한 것이 아니다. ‘그냥 얼른 끝내고 말자’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더 이상의 거부 의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말을 해야만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짐작과 눈치, 혹은 일방의 의지대로 흘러가게 되면 어느 한쪽은 수세적으로 거부만 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상대의 상태를 살피고, 긴가민가할 때에는 구두로 물어보고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동의 과정이다. *

짐작과 무시의 근거: 성별고정관념

성적의사소통이 실패하고 성폭력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한 쪽의 우발적인 성욕이 아니다. 성적 제안을 하는 쪽이 상대방의 의사를 지레 ‘짐작’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더 우선시해서 상대방의 상태나 의사표현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남성은 성욕이 강하고 적극적으로 리드(공격, 정복)하는 성향이고 여성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응하는 성향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남성의 성욕은 통제하기 어렵고 해소해줘야 한다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여성의 성욕과 동의의사는 자주 왜곡된다. 여성의 명시적인 ‘No’를 ‘Yes’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머뭇거림이나 거부하는 제스처를 무시해도 된다고 인식한다. 능동적인 남성과 수동적인 여성이 만나서 조화로운 성적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신화에 근거해서 상대의 의사를 짐작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지레짐작하고 무시하며 자신의 욕구를 관철하고 싶은 사람들은 ‘괜찮다’는 말을 많이 한다. “너나 괜찮지 나는 여전히 괜찮지 않다”는 말을 돌려주고 싶은 상황이다. 땀이 난 상태라 접촉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괜찮다”며 다가온다. 말 그대로 ‘땀이 나 불쾌해서 접촉하기 싫은’ 것인데, 상대방은 ‘땀이 나있는 상태가 부끄러워서 그런가보다’라고 짐작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키스를 원하는 상황에서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안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침묵을 ‘Yes’라고 생각하고 다가오는 것 또한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내지는 ‘완전히 싫은 건 아닐 거야’라고 짐작하는 것이다. 침묵은 고민일 수도, 거부일 수도 있다. 확실한 동의가 아니기에 상대가 의사표현을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질문해야 한다.

남성만 능동적이고, 상호 동의를 확인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그냥 남성이 하고 싶어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키스, 가벼운 애무 정도만 하기로 정했어도 그 자체를 성기결합의 동의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남성성욕 신화 그 자체다. 성관계를 하고 싶은지, 지금 할 수 있는 가능한 신체적 심리적 상태인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싫다고 소리를 지르는 데도 손목을 잡고 끌고 가고, 기습키스를 하는 드라마 장면들에서도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재생산하고 있다.

성별고정관념이 있는 이성애중심 사회에서 한 여성 개인이 오롯하고 자유로운 자기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기는 쉽지 않다. 거부가 거부로써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또는 여러 이유로 동의할 수밖에 없어 동의한 성적 접촉은 불쾌함과 찝찝함으로, 또는 자책이나 훼손된 느낌으로 남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상대방의 상태를 파악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좋다고 하면 돼

‘진도를 빼는’ 것이 자기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투덜대고 빠치거나, 화를 내고 욕을 하거나, 계속 조르고 애걸한다. 상대의 기분이든 관계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여자가 된다.

100일이 지나면 키스를 해야 된다는 암묵적인 진도가 있다는 걸 몰랐고(전적으로 그 사람의 기준일 뿐임에도) 100일이 지나도 협조하지 않자 계속 빠치고 어느 순간에는 완력을 써서 성적 접촉을 시도한다.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려고 해 손을 건어냈더니 화를 내고 욕을 한다. 하기 싫어서 하기 싫다고 했더니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다. 거절했더니 토라져서 뒤돌아 눕고 계속 중얼거린다. 계속 싫다고 하는데 계속 강요한다. 성관계를 하지 않기로 하고 모텔에 가서 침대에 나란히 누웠는데, 처음과 달리 계속 성관계를 재촉해서 강하게 ‘안된다’고 했더니 바로 옆에서 시위를 하듯이 자위를 한다. “뭐야?” 라고 했더니 “네가 안해주잖아”라고 한다.

캠퍼스커플이라는 이유로 앞에서 뽀뽀하라고 다 같이 몰아가는 상황은 애초 동의를 받을 위치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압박감, ‘너 말고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넌 왜 그런 반응이냐’는 말이 나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네가 유혹했잖아”, “발기가 풀리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회유로 마치 남성의 성욕을 풀어주지 않으면 미안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손만 잡고 잔다”, “차 끊겼으니까 잠깐 쉬다가 가자”, “술집 문 연데도 없으니까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모텔에서 마시자”, “내가 널 건드리겠냐”와 같은 말로 경계심을 풀도록 한다. 그러나 막상 모텔에 여성이 들어오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짐작하며 거부의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종용한다.

이런 상황은 마치 남성이 성관계를 무척 바라고, 여성은 성관계를 허락하는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성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지 않다. 정해진 답(동의)을 원하는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며 압박을 받고, 마지못해 ‘동의’를 하게 된다. 이것은 동의가 아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나 갈등이 깊어질 걸 우려해서, 혹은 거부를 포기해서이지 성관계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위기·관계 상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고 합의가 가능한 관계라야 괜한 미안함 없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

1이 좋다고 했지 10까지 가자는 건 아니었어 모든 과정에 스며들어야하는 것

동의를 초반에 1회차로 승인되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다. 동의를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동의 의사를 묻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각과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모든 과정에 스며들어야한다. 키스를 했다고 해서 가슴을 만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쁜 예이다. 분위기에 맞춰 춤을 춰 줄 수 있었던 것일 뿐이지, 엉덩이를 만져도 된다고 한 것은 아닌데 일방적으로 과정이 생략되어 불편한 감정으로 남는다.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 말투, 표정이 조금이라도 불편해보이면 괜챤냐고 물어보며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다. 서로가 좋아하는 환경, 피임방법, 성적 접촉의 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 성적 행위를 하기 싫거나 할 수 없는 신체적·심리적 상태인지 섬세하게 확인하고 공유하며 결정해야한다. 서로의 원함에 대해 소통해서 합의된 선까지만 진행하면 된다.

처음의 동의를 관계 전체의 동의로 해석하면, 뒤늦게야 상대가 슬프고 우울해보여 과정 없이 성적 행위를 했다는 깨달음을 받는다. 몸에 관한 강의를 신청했는데 강의 중 신체접촉이 있다고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 강의에 참여하던 중 신체접촉이 있다고 해서 난처했다. 내게 선택지가 없고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나의 상태를 살피고 묻는 데에서 존중받음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이성애관계에서 약자인 여성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상대를 살피고 질문하며 알아가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의사소통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성 파트너가 성적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내 제안에 대해 “그런 것을 말로 하거나 물어보는 게 분위기 깬다, 싫다”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화를 냈다.

만약 명시적인 질문이 있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편견과

달리, '분위기 깨는' 상황이 되지는 않는다. 상대방에게 '거절'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것뿐이다. 오히려 "내가 ~게 해도 될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섹슈얼할 수 있다. 상대의 욕구가 아닌 내 욕구에 집중하여 대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서로 성관계를 원하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만큼, 다른 행위의 시작마다, 혹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동의의사를 확인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있었을 때 그 관계가 동의에 기초한 관계라고 느낄 수 있다. 동의라는 감각은 성적 경험 전에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고, 성경험의 과정에서도 감정과 느낌을 곧바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 또는 가능성에서 만들어진다. *

제안과 철회의 가능성

성적 접촉을 할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 편안하게 제안하고 수락하거나, 어떤 압박감 없이 성적 제안을 철회한 경험이 있었을 때,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고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때, '동의'라는 느낌을 받는다. 또한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져야 '동의'라고 생각한다.

나의 거부 의사가 거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거부한다면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스스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언제든 성적인 시도나 접촉을 나의 마음 그대로 제안·수락하거나 거부·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 성적 접촉을 거절하자 조르거나 투덜대지 않고 그대로 중단했을 때, 성관계 도중 어떠한 체위가 싫다고 했을 때 즉시 멈췄을 때, 또 성관계를 하고 싶었으나 피임도구를 준비하지 않아 서로 아쉬기는 했지만 중단되었을 때, 존중을 확인 할 수 있다. 서로 어떤 요구사항이 편한지 편하지 않은지를 알고, 편하지 않은 것을 강압적으로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성적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 기분을 자신의 욕구와 동등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느낌이 들 때에 동의하에 성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긴다. 내 기분이 상대의 욕구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적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기분과 상태를 살피는 태도로부터 온다. *

‘동의’ 구해본 적 없지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라는 명제가 상식이 되어가는 가운데, ‘경찰이나 검·판사 모두 여성의 편을 들기 때문에’ ‘성폭력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이제 섹스하기 전에 녹음해야겠다’, ‘성관계 전 동의를 체크하는 어플을 쓰자’, ‘계약서를 써야겠네’ 등의 저항도 일어난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생략한 채로 ‘동의한다’는 말 자체가 동의를 담보할 수 없다. ‘명시적이고 확실한 동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증거로 남기고자 하는 녹음, 어플, 계약서 등은 현실 관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동의가 아니다. 모델에 들어가기 전 동의한다는 녹음을 하고 들어가서 다 벌거벗어도, 한쪽이 거부한다면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증거로서 이것들이 효력이 있을 것이며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없고, 관계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긴 무례한 시각이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있어야 할 상호동의를 가볍게 여기고, 동의 문제를 ‘성범죄에 해당 되느냐 안되느냐’ 여부에만 집중한 인식이다. 상대방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행태이자 강압적으로 동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상 이러한 태도로 동의라는 필수적 의사소통을 무가치한 것으로 깎아내리는 태도는 가해자가 되기 쉬운 권력적인 위치에 있기에 가능한 조롱이다. 동의란 상대의 의사를 잘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기도 해서, 동의를 확인한다는 것은 상대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살피고 자신의 위치를 성찰할 때에 가능하다. 진심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될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까’ 두렵다면, 상대방과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공을 들이려고 더 노력해야 한다. ‘만에 하나 무고가 된다면’이 더 고민된다면 시도를 하지 않으면 된다. ●

평소의 평등한 관계

데이트관계에서는 이심전심이 통한다는 통념이 있다. 진정한 사랑에는 말이 필요 없을까? 한편, 서로의 마음을 ‘이미 확인했다’, ‘알고있다’는 확신은 다양한 성적의사소통 부재와 성폭력의 은폐로 이어진다. 막연한 상상과 짐작, 이성애중심적 연애각본을 따른 ‘이심전심’은 혼쾌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보증하지 않는다.

물론 동의는 말뿐만 아니라 몸의 움직임으로도 이루어진다. 드물긴 하지만 서로의 몸짓이나 표정을 확인함으로써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인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의 반응과 욕구를 살피며 성적행위를 했을 때, 원하는 것이나 불편한 것을 말하거나 표현할 수 있었던 경험도 있다.

데이트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사이라는 신뢰가 있고, 스스로가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 비언어적인 동의가 가능했다. 나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성별고정관념 등을 이유로 곡해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갖고 관계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언어적인 동의는 성적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평소의 의사소통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여야 가능했다.

그런데 비언어적인 소통의 어려움은 동의의 웃음과 거부의 웃음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우리는 동의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음소리를 낼 수 있다. 반대로 고민스럽거나 싫은 마음이 들 때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몸을 틀기도 한다. 분위기를 환기하고 벗어나려고 웃기도 한다. 상대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며 키스를 시도할 때 기분이 좋지 않았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수 있다. 상대가 좋아하니 나도 좋을 수 있겠지 싶어서 한 성적 접촉이 막상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경험으로 남기도 한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때와 정도를 상대방과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는 관계일 때, 때로 늦어지더라도 응답을 기다려주는 태도를 만날 때 나의 인격이 존중받고 상대와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과거 파트너가 “~해도 될까?” 라고 의사를 물어와 ‘이런 걸 왜 물어보지?’라며 답답하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나의 의사를 묻고 존중하는 과정이었다는 해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평등한 관계란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관계이며, 여기에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당연하다. 서로를 살피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관계 ‘당하는’ 또는 관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와 행위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평소에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한다. 평소에는 한쪽이 강압적이고 더 큰 힘을 가진 관계가 성적의사소통을 할 때에만 평등해질 수는 없다.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한 평등한 성적 경험이 훗날에도 편안한 경험으로 남는다. 성적 대상이 아니라 대등한 섹슈얼리티를 지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경험, 동등한 성경험의 주체가 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

함께 쓰는 성폭력사전

동의 · 위력 · 강간문화 · 성인지감수성

위력

위력은 눈에 보이는·보이지 않는 ‘서열’에 의한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상급자)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하급자)를 권력으로 휘두르는 행위를 통칭하며, 성별(gender) 불평등 등 왜곡된 권력관계를 유지시키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 또는 미래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당장 감수해야 하는 ‘확실한 피해’를 예상함으로써 위력을 경험합니다.

위력은 권력자가 말 한마디 없이 눈빛·입김·손짓 등으로 행사되기도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권력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강제합니다. 비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스스로 수행하게 만듭니다. 위력은 내가 이룬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웃도록 하고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입니다.

위력은 옳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정신적·사회경제적·육체적 불이익에 대한 직간접적 위협 속에서 말을 꺼낼 수 있는 위치인지 생각하라는 끊임없는 압력을 행사하고, 문제제기하거나 토론할 기회를 차단해 나의 의지를 목소리로 표명할 수 없도록 합니다.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통해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도록 막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나’로서 온전히 있을 수 없도록 합니다.

우리는 진로, 취업, 지위 등에 손해를 입힐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이 선생님, 직장 상사 등에게 있다고 느낍니다.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더 높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의 권력은 구성원들에 의해 합의되고 위임되어,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공동체를 움직입니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거스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정신적)·사회경제적·신체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공포를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위력은 전적인 지배력을 행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는 관계에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큼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학교·가족 등 내가 속한 관계 안에서 아무런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가진 권력이 무엇인지, 그 크기가 얼마 만큼인지, 누구에게 행사되고 있는지, 누구로부터 행사 받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때 즉시 문제제기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감각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야 위력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

49개국 중 115위

세계경제포럼(WEF)은 2005년부터 매년 성격차지수(GGI)를 발표하고 있다. 성격차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분야별 여성과 남성의 성별 격차(Gap)를 지표화하여 보여준다. 성격차지수에서 측정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경제참여와 기회**
경제활동참가율, 유사업무 임금성비, 추정소득 관리직 비율, 전문직 비율
- **교육적 성취**
문해율, 초·중·고 취학률
- **건강과 생존**
출생성비, 건강 기대수명
- **정치권한**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여성 국가 수장 재임기간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115위(145개국), 2016년 116위(144개국), 2017년 118위(144개국), 2018년 115위(149개국)로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경제참여 및 기회 지표는 2017년 기준 121위(144개국)로 심각하게 낮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를 보여주며, 고용관계 안에서 상사(대개 남성)로부터 차 심부름, 책상 정리, 식사준비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빈번하게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가 되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

권력관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중학교에 입학했다. 체육시간이 끝나고서도 치마 교복 속에 체육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도부장인 선생님에게 걸려서 우르르 불려갔다.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자기 앞에서 바지를 벗으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고 불쾌했지만 항의하기 어려웠다. 한 선생님은 수업내용과 관계없는 동성애 이야기를 꺼내며 혐오발언을 계속했다. 학생들의 항의가 계속되었지만 선생님은 '왜 항의하는지 모르겠다'며 혐오발언을 했다. 중단시킬 방법이 없었다. 방학기간 잠시 헬스장에 다녔다. 트레이너가 성희롱 발언을 해서 화가 났는데, 헬스장 등록할 때 적었던 전화번호가 생각났다. 괜히 해코지 당할까봐 그 날 이후 헬스장에 가지 않았다. 명절날 오신 친척 어른이 기분 나쁜 질문을 계속 했지만 화내지 못했다.

대학에 들어갔다. 수업 전 교탁에 교수님이 마실 물병을 챙기는 역할을 담당했다. 내 친구는 교수님 생일날 돈을 걸어 선물을 챙겼다. 한 동아리에 들어갔다. 선배에게 존댓말하고 허리 숙여 인사하게 하는 문화가 있었다. 한 전공 교수님이 나에게 1:1로 저녁식사를 제안했다.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뒷풀이 자리에 갔는데 남자교수님의 앞과 옆에 여학생들을 배치하고 술을 따르게 했다. 멀리 떨어져 앉아있는데 교수가 내 이름을 부르며 옆으로 오라고 했다. 싫다고, 그냥 여기 앉겠다고 말하지 못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가서도 사장에게 항상 웃으면서 듣기 좋은 말을 했다.

취직을 준비했다. 인턴으로 채용되어 기관에 입사할 가능성이 생겼다. 회식자리에서 한 남자직원이 자기가 먹은 잔으로 술을

마시라고 권했다. 술을 받자 내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계속 매만지고, 허벅지를 터치했다.

•
계약직으로 취업했다. 회식이나 단합대회같은 행사에 강제로 참석했다. 회식자리에서 과장님은 블루스를 추자고 재촉했다. “옆 부서 여직원은 웃으면서 인사하던데”, “팀 내 분위기 띄워라”는 말에 항상 웃는 얼굴을 했다. “OO씨는 영업팀의 꽃이지”라는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여야했다. 내 연애사를 캐내고 결혼하라는 잔소리를 들었다.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도 펜스를 운운하며 억울해했다. 폭언, 갑질, 따돌림, 책임전가, 그리고 여성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적은 급여에 사무실 청소까지 도맡았다. 한 남성팀장은 자기 말을 무시했다며 여성팀원들을 불러내 20여 분간 폭언을 했다.

•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상사보다 일찍 출근했지만 상사가 퇴근을 ‘허락’하기 전까지는 퇴근하지 못했다. 상사는 사내에서 거리낌 없이 화내고 짜증내고 투덜댔다. 상사의 질문은 언제나 답이 정해져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상사처럼 할 수는 없었다.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여성’으로 호명되었다. 한 유부남 팀장이 “사귀자”며 플러팅(firting)을 하기에 거절했더니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인 줄 알았다”고 했다. 내가 좀 수위 있는 농담이나 이야기에 정색하지 않고 대꾸해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당했다. 명예남성인 대표에게 고충상담을 했더니 “플러팅을 즐겨야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회사 안에서는 답이 없다는 생각을 굳혔다.

•
이직을 했다. 첫 출근날 선임은 남성 상사에게 드립커피를 내려주고 오전마다 책상을 청소해드리고, 커피를 리필 해줘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그걸 내가 왜 해야되냐”라고 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 관리비 문제로 갑자기 전화를 건 집주인이 사생활과 관련한 무례한 말을 늘어놓았다. 참고 전화를 끊었다. 각계의 ‘미투’가 방송된 다음날, 직장상사들이 피해자와 여성 일반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늘어놓았다. 나는 침묵을 지키거나 화제를 돌렸다.

•
관계가 있는 곳 어디에나 권력관계가 있다. 위력 또한 집이나 가족관계, 학교, 직장, 심지어는 여가생활을 하는 동안에서도 어디에서나 발휘된다. 성적인 침해나 ‘갑질’로 이야기되는 여러 부당한 압력들이 그것이다. ‘스쿨미투’, 각 대학에서의 교수 성폭력 공론화, 직장 인트라넷이나 어플 ‘블라인드’에서 미투운동이 벌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

예견되는 불이익

실직, 업무평가, 관계파탄, 따돌림 등 실질적으로 예견되는 불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받을 ‘막연한 가능성과 두려움’을 통해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위력의 힘이다. 위력은 조직 내에서 부여한 권한이나 직위에 기반하는 힘이기에, 권력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인을 구속하는 힘으로 다가온다.

위력적인 상황에서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서, 혹은 당황해서

— 불쾌하긴 한데, 이 느낌을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배우질 못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들어줄지 화를 낼지 모르겠고, 다 큰 어른을 내가 바꿀 수도 없고.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느꼈습니다.

— 당시에는 위력이라는 인식을 못했고, 상사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위를 맞추는 것이 일을 잘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바로 문제제기를 하진 못했어요. 나의 예민함이 아닐까 스스로 되뇌면서 몇 번을 넘겼어요.

• 조직의 관행이 되어버린 권위와 차별

— ‘여긴 원래 그래’라는 식으로 말을 잘랐고 전반적으로 당연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발하면 젊은 직원의 치기, 이상한 문제야 정도로 여겼습니다.

— 상사 가까이에 여자직원이 앉는 것을 마치 여성으로서의 특권처럼 여기게 하고 그 자리에서 제외되었을 때 열등감이나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회사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노래

부를 것을 강요당하는 데 저 혼자 안한다고 하면 분위기 깬다고 욕먹을까봐 겁도 났습니다.

— 하급자가 숙여야한다는 문화적 규범이 강해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위력이 조직운영을 위한 리더십으로 인정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 내가 똑같은 상사짓 하는 것을 인식했지만 깊은 성찰보다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라는 방패 뒤에 숨는 것이 쉬웠습니다.

• 나의 업무, 나의 업계에서 생존해야 하니까

— 상사는 나의 경제력,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이니깐요. “이 바닥 좁은 거 알지?”라는 말을 달고 사는 상사에게 찍히면 회사생활 뿐만 아니라 이 업계에서 이직이 어려울 걸 알았습니다. 관련 업계 취업이 처음이었고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어요.

— 다른 동료에게 대표에 의한 피해를 이야기하고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월급 주는 사람 마음인데 어찌겠냐”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 저는 을도 병도 아닌 정이었으니까요. 차라리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사와 관계가 나빠지면 업무 관련 정보들을 들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저의 결과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드세다는 소리만 들을 수 있으니까요. 선임도 나와 같은 여자인데 제가 따지면 괜히 선임과 저 둘 다 해코지 당할까봐 말없이 퇴사했어요.

• 가해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조직과 싸우는 것이라서

— 단순히 위력을 행사한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 전체와 싸워야한다는 생각까지 해야됩니다. 부장이면 밑에 과장,

차장, 대리까지 주르륵 “우리 부장님이 그럴 리가 없어”라며 회사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버리죠. 그렇게 싸웠을 때 좋은 사례, 승리한 사례를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 장기전으로 가야된단 생각을 하면 지치잖아요. 사무실은 집보다도 더 많은 생활을 하는 공간인데 혼자 버텨야된다는 생각을 하면 벌써 지치고 두렵습니다.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고, 친했던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누구도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고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나의 지위만 나락으로 떨어질 게 뻔했어요.

• **불이익의 가능성과 두려움**

— 남은 학교생활에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봐. 어리고, 학생이고, 여자인 약자였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확실하게 쥐고 있는 것 없이는 싸우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텐데,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 나는 신입사원, 어린 막내 여성 직원이었고 상대는 중년의 남성 상사였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습니다.

— 교수와 학생이라는 지위 차이가 있으니까요. 다른 학생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 교수 지시를 안 따르면 유무형의 차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018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를 살펴보면, 실태조사 참여자 중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여성(14.2%)이 남성(4.2%)보다 10퍼센트 가량 더 많았다. 반면에 성희롱 가해자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83.6%) 상급자(61.6%)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성희롱을 경험한 뒤 대개는 참고 넘어가는 편(81.6%)을 택한다. 동료에게 의논(8.6%)하거나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대응(6.9%)하는 피해자는 비교적 소수이며,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사내기구에 신고하는 사례는 1.9%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비단 일터뿐만 아니라 학교, 가족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윗사람에 의해 부당한 요구나 폭언,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기란 어렵다. *

‘갑질’에 분노하는 당신, 직장 내 성폭력은?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석궁을 쏘고, 닭을 잡는 등의 영상이 공개되었다. ‘슈퍼갑질’, ‘엽기만행’이라는 수식어를 단 이 사건에 “저건 진짜 갑질이고 말도 안된다”, “직원들 너무 불쌍하다”, “직원들 짝 소리도 못했겠다”는 이입이 어렵지 않다. 학교나 직장 등 피해자와 가해자 간 권력차가 명백한 곳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도 저항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에는 정반대로, “왜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냐”, “왜 시키는 대로 했느냐”며 의심스러워한다. 위력이 성폭력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교사와 미성년자 학생’ 또는 ‘목사와 신도’ 같은 관계가 아닌 이상 불륜이라고 치부할 만큼 편견이 뿌리 깊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한국에 무수히 많은 ‘부장님’이 아니라 대권주자였다. “상사가 자신을 성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고 다른 동료들로부터는 배신당했는데, 밥줄을 잡힌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냐”라고 말했더니 “아이 그거랑 그건 다르지”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러한 반응들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납득하기 싫다는 의지로까지 보인다. ‘대단한 남성을 실각하게 하는 여성’, ‘성적 대가로 받을 것이 있는 여성’, ‘원하는 것이 있는 여성’, ‘복수심 때문에 무고할 수 있는 여성’, 이것은 삼손이나 안토니우스 같이 유구한 레퍼토리이면서 동시에 가부장제가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주장처럼 다른 권력으로부터 ‘공작’하도록 지시받아 이행한 것이었다면 일찍이 들통 나고 사회적 삶이 끝났을 것이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사람들의 옹호는, 평소 덕망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해자일리 없다고 부정하는

심리일 수도 있다. 사회는 ‘펜스룰’을 운운하면서 여성에 대한 근거없는 경각심을 키운다. 그러나 실제로 위력 성폭력의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피해를 알린다고 얻을 것은 전혀 없다. ‘자신의 몸을 자원삼아 권력에 접근하는 여성’이라는 편견은 엄연히 있는 위력을 부정하는 인식이다. ●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위력'에 맞서다

내 장래에 대한 염려, 사회관계의 악화, 앞으로의 업무생활이 어려워질까 봐, 진로가 막힐까봐,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성적에 영향을 미칠까봐... 여러 고민 끝에 대응해야겠다고 마음먹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대로 두면 점점 더 심해지지만 할 것이라는 예감, 뿐만 아니라 상대가 가진 위력이 앞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 그렇기에 상대가 더 큰 권한을 행사하는 일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긴 전장으로 나서게 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위력에 대응한다. 개인적인 대응방식으로는 임기응변을 발휘하여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해서 중단시키기도 한다. 교수가 머리를 기대오기에, 직접적인 대응 대신 큰 소리로 “교수님, 중심을 옮기시죠!”라고 말했다니 당황하며 고쳐 앉았던 경험이 있다.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또는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며 싸워나갈 수도 있다. 동료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사장에게 보고한 경험도 있다. 1년여의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가해자에게 사과도 받고, 팀을 변경해 근무를 지속할 수 있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자 정치인 안희정을 지지했던 ‘팀 스틸버드’는 지지를 철회하고 피해자를 응원했다. 연대하고자 하는 주변 사람들이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모였다. 연출가 이윤택을 비롯한 연극계 성폭력이 미투를 통해 공론화되었고 뜻을 함께하는 연극인들이 ‘반성폭력 연극인행동’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스쿨미투’는 교사에 의한 성차별·성희롱 발언과 성폭력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각 대학가에서는 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공론화되었고 대책위가 꾸려져 대응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스스로의 위치를 성찰하기

‘남존여비’라는 성차별주의를 오랫동안 교육해 왔던 한국사회에서 남성이란 것 자체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존재,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대를 받아도 되는 존재라고 인식되어 왔다. ‘장유유서’라는 나이주의 속에서 연장자라는 권력, ‘엘리트’로 일컬어지는 학력주의 속에서 고학력자의 권력, 서울중심주의 속에서 서울거주자라는 권력, 소위 ‘정상성’ 속에서 비장애인이라는 권력, 이성애자라는 권력 등 각자의 조건과 위치에 따라 권력관계가 생기고 움직이곤 한다.

서울에 사는 대학을 졸업한 시스젠더(cisgender)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성이라는 정체성만으로도 이미 많은 권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여성 대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관계가 아니더라도 여성 안에서 직급, 관계, 위치의 차이와 위계가 발생한다.

촬영 전에 같이 술을 먹다가 ‘우리 직급 차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현장에서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당신에게 문제제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이 되게 기분 나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 사이인데, 그냥 말하면 되지’ 이런 지점에서. 제가 생각한 관계와, 그 현장에서의 관계, 그분이 생각하는 관계가 다 다른 거예요. 감독과 연출부는 직급적으로는 되게 멀거든요. 나중에 그 분이 “나는 여자고 나이도 어리고 항상 (다른 현장에서는) 약자 위치에 있다가 (여성인 대부분이고, 나이가 비슷한 이번 현장에서) 처음 그런 위치에 서봐서, 나한테 권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조금 발끈한 거 같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여성민우회,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누가 만들어주는게 아니니까」
□이/가 직접 만드는
조직문화(2018) 중에서

권력에 대해 어디까지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조직, 단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계속 갱신되어야 한다. 권력관계는 모든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더 권력을 가진 자는 항상 자신의 권력의 크기를 인지하고 그 힘이 상대방에게 위력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내가 가진 권력을 인지할 때 위력이 행사되지 않을 수 있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

함께 쓰는 성폭력사전

동의 · 위력 · 강간문화 · 성인지감수성

강간문화

여성을 인간이 아닌 선택을 받아야 할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섹스, 임신, 혹은 출산의 도구로 인식합니다. 차별에 따른 ‘젠더권력’을 인식하지 않고 남성들은 여성들을 착취합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목소리들을 예민함으로 매도하고, 성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성을 폄평하고 쟁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여자를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장난감으로 만들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TV 광고 등의 미디어에서는 여성을 상품화하는 콘텐츠들이 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들은 일상에 깊숙하게 스며들어 여성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이 아닌 성적인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합니다.

남성사회는 여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며 남성성을 확인합니다. 여성에게 ‘돼지발정제(강간약물)’을 먹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강간을 추억으로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남성의 성적 욕망을 본능이라며 당연시하고, 남성성을 서로 부추기고 절대시 합니다.

여성들은 화장실처럼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도 본인이 찍힐 것을 두려워하며 성적위협에 시달리고, 이 불법촬영물들은 유포·공유·소비됩니다. ‘앞이 창창했던 젊은 남성의 치기어린 실수’,

‘술자리에서 일어난 게임 같은 장난’ 등 성폭력을 아무 문제없는 일상의 한 장면처럼 여기면서 용인해주고, 성폭력을 ‘놀이’ 또는 ‘관습’으로 여기고, 결국엔 성폭력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합니다.

성차별, 성폭력, 접대문화, 남성연대 등 여성들은 일상에서 겪은 불쾌하고 불편한 이 경험들에 ‘이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성들은 일상에서 이 각각에 해당하는 경험들을 자주, 다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겪은 개별적인 경험들을 총체적으로 일컬어 ‘강간문화’라고 부릅니다. “강간이 문화라니”, “지나친 비약이다”라며 거부하고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폭력’임을 끊임없이 이야기 할 것입니다. ●

남성성이라는 신화 “야, 이 XX. 진짜 남자네”

남성들은 여성을 ‘따 먹고 싶다’라는 말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전제의 대화를 한다. 성관계가 동의를 구하는 합의의 과정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으며 과일을 따먹듯 남성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강간에 가까운’ 성관계 경험을 자랑한다. 여성을 ‘따먹은’ 성관계 경험은 그들만의 ‘트로피’이고, 그것을 추켜세우고 부러워하는 다른 남성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일종의 무용담으로 각자 경험한 섹스를 공유하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준다.

서로의 친분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졸업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복학생모임’에 참여했었는데, 서로 서먹한 사이임에도 주로 나오는 이야기는 사귀었던 여성과의 성관계 이야기였다. 단순한 연애 이야기도 아닌 다분히 폭력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이야기였다. 오랜만에 만난 성장한 남성들이 서로의 ‘성공’을 판가름 하는 요소 중 하나는 ‘여자랑 얼마나 잤느냐’이다.

남자는 원래 성욕의 동물이고 섹스의 주체로 여기는 인식은 여성에게 남성의 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혹은 기를 살리기 위해 거짓언기를 하도록 한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탐색하는 여성을 ‘창녀’, ‘걸레’라는 말들로 혐오하거나 통제하고, ‘여성은 성에 대해 잘 알더라도 순진한 척 해야 한다’라는 말들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한다. 이렇게 여성은 남성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도록 만든다.

여성들은 가벼운 클리토리스 자극으로도 오르가즘에 도달 할 수 있음에도 ‘삽입섹스로만 오르가즘에 도달한다’는 날조에 가까운 이야기들로 여성의 섹슈얼리티 구현에 남성의 ‘성기’를 필수인 것처럼 인식하게끔 하여 남성 주체의 섹스 신화를 지속시킨다. 이런 방식의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은 남성들의 ‘강간문화’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

여성에게 일상의 공포, 그들에게 유머코드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들이 쉬는 시간마다 왕따인 친구를 서로 번갈아가며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 남자친구들은 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강간놀이’를 하는 거라고 했다. “넌 지구가 내일 멸망하면 어떻게 할 거야?”, “강간해야지”라며 강간을 그저 말장난으로 소비하는 상황을 많이 보았다.

2000년대 디씨인사이드를 비롯한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간시키다’의 어원에서 비롯된 ‘캐관광’, ‘역관광’이라는 은어를 쓰는 것을 자주 보았다.

게임을 할 때도, ‘캐릭터가 죽는다’, ‘몬스터를 죽인다’라는 말 대신에도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1:1로 대결하다 지면 ‘강간당했어?’라고 말하거나, ‘강간해버린다’라고 한다. 특히 상대방의 캐릭터가 ‘여자’로 보이는 경우이거나, 상대 플레이어의 성별을 몰라도 비하하는 목적으로 쓴다.

이렇듯 상대의 성별이 무엇이든 여성으로 전제한다는 것은 남성들이 여성을 동등한 주체로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 강간 피해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여성들에게 ‘강간한다’라는 말을 게임 플레이 중 문제의식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강간’이 그들에게 ‘놀이’, ‘유희’, ‘아무렇지 않은 것’임을 보여준다. ●

뭐가 문제데? 유구한 '단톡방' 문화

'남성성'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 학교 교실의 매순간들이 강간문화의 현실을 보여주는 표본이다. 쉴 새 없이 이루어지는 여자 아이들을 향한 외모품평, 야한 농담 하기, 유머인 것처럼 당연시 하는 성희롱들. 한국의 남성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강간문화를 배우고, 익히고, 그것이 진정한 남성성이라고 착각하며 성장하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남자아이들을 배제하고 따돌린다.

몇몇 사건들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SNS·단톡방 문화는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있어 왔다. 대학교에서 과 남자 동기들이 같은 과 여자 동기의 외모를 1위부터 꼴찌까지 순위 매기며 생김새부터 몸매의 형태까지 구체적으로 품평하며 공유하는 문화, SNS에서 남자들끼리 여성 사진을 대상으로 '자빠뜨려!'라며 범죄에 가까운 상상의 글들을 문제의식 없이 전체공개로 올리는 것, 남자친구가 속해있는 단톡방에서 한 남자가 "OO이랑 어제 잤다, 개 ~하던데"라며 성경험 공유를 하자, 다른 남자가 "아, 개? 나도 먹었는데?" 대답하고 남자친구는 "맛있게 먹었냐?"며 남성연대에 함께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목격한 경험도 있다. 과거 수십 년 전, 수년 전에도 약물을 이용해 강간모의를 한 경험담, 학창시절 한 여중생을 '공유'하는 데에 가담했다는 경험담이 자서전이나 에세이로 출판된 바 있다.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사건들은 성폭력 가해를 '남자되기'의 방법으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함께 모여 재미삼아 성폭력 가해를 하고, 방관하고, 동조하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강간문화를 종식시키는 첫 단계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하지도, 동조하지도, 방관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다. *

여성을 매개한 남성연대

남자친구가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일종의 '관례'라며 군대 선임들과 함께 외박을 나가 성매매 업소에 다녀왔다는 것을 알았다. 선임의 제안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면서 자기 친구나 선배들 중에 군대 가서 성매매 안 해 본 남자가 없다고 했다. 군대에선 성욕을 풀 수 없으니, 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말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대표가 신입사원에게 잘해주고 이것저것 정보들을 주었다. 다른 직원들은 대표가 신입사원이 '젊은 여자'라는 이유로 대단한 메리트며 특별대우를 해준다고 여겼었다. 하지만 실제로 젊은 남자 직원과 아저씨 직원들은 퇴근 후 항상 함께 룸살롱에 가서 각종 정보공유와 함께 신뢰감과 화합을 다졌다. 그 문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늘 배척당했다. 남성연대는 이렇게 여성을 배제하거나, 또 다른 여성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강화 된다.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이 터지면서 남성들의 성매매 문화, '접대' 문화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클럽 버닝썬의 이사였던 유명 연예인은 버닝썬 VIP를 대상으로 '접대' 명목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매매에 가담하기도 하였고, 버닝썬에서는 약물(GHB, 중추신경억제제)을 사용하여 강간을 자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버닝썬 VIP룸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은 클럽 입구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거나 신고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버닝썬은 경찰에게 뇌물을 주며 유착관계를 맺고 경찰은 성폭력, 준강간, 성매매, 성매매 알선을 방조했다. *

강간을 해도 '안전한' 남성

최근 클럽에서 만난 남자에 의해 턱과 두 다리가 골절되고 강간을 당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몇 명 이었는지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 술에 약물을 탄 것 같아 신고를 했으나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범인은 기소조차 되지 않아 멀쩡히 잘 돌아다니고 있다.

클럽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골뱅이'라고 부르거나 항거불능한 상태를 악용하여 강간하는 것을 '홈런치다'라는 은어로 부른다. 이는 범죄인 강간을 저질러도 남성은 '안전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클럽이 운영되는 시스템은 철저하게 강간문화를 부추긴다. 남성들에게는 고액의 테이블 비용(1개당 5~60만원)을 지불하게끔 하여 장벽을 높이고, 여성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받는 대신 '입뺨'이라는 정책으로 외모가 '뛰어나'거나, '노출'을 한 여성만 입장을 허용한다. 입장료를 지불한 남성에게는 그 지불 대가로 맘에 드는 여성을 선택하고 함부로 몸을 만지는 등 성희롱, 성추행 하는 것을 허용한다. 고액의 금액을 지불한 남성들이 약물을 이용한 강간을 해도 모른 척 하거나 범행 장소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강간약물을 구해다 주기도 한다.

클럽의 안전에 관한 규칙들은 클럽 운영진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뿐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는 없다. 여성들은 클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경찰은 클럽과 유착을 맺고 수사는커녕 신고접수조차 하지 않으며, 검찰은 같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다. 국가가 '강간문화'를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성폭력을 허용하고 옹호하는

사회에서는 연애 경험이나 성경험이 많은 여성을 '걸레', '창녀'라고 부르고, 반대로 남성은 '롤모델', '우상'이라고 칭한다.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남자의 자위방법을 가르치며 온 사회가 나서서 남자의 성욕을 '우쭈쭈' 해준다. 반면 여성은 조신해야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며 여성이 성욕이 있고, 클리토리스로 자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저 아기가 자라는 소중한 '자궁'의 존재만 교육받으며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다양한 방식으로 억압하고 통제해왔다. 이렇게 우리를 지배해 온 고정관념들은 여러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이 고정관념들로 피해자의 경험을 의심하고 왜곡한다.

가해자는 '옷을 야하게 입어서', '밤늦게 돌아다녀서', '모텔에 함께 따라가서', '거절을 하지 않아서', '단둘이 술을 마셔서' 당연히 동의한 줄 알았다고 성폭력을 부인한다. 수사·사법기관은 '진짜 피해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며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성들에게 옷을 마음대로 입을 자유가 있고, 모텔에 함께 간다는 것은 쉬고 싶다는 뜻일 뿐이다. 술을 함께 마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술을 마시고 싶었다는 뜻이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동의했다고 믿는 것은 혼자만의 상상과 착각에 불과하다. 수사·사법기관들은 이런 상상을 인정해 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사법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

공기처럼 스며들어있는 미디어 속 강간문화

데이트 폭력, 스토킹에 가깝게 치근덕거리는 모습을 로맨틱한 것으로 포장 하는 장면들, 지인들의 연애담 속 폭력을 사랑으로 묘사하고 SNS 상에서 좋아요 물이를 하는 콘텐츠들, 광고나 예능에서 여성을 혐오하는 내용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장면들, 남자들만 등장해서는 여성을 착취하거나 도구화 하고 ‘그들끼리 다 해먹는’ 남성중심의 영화들, 최근에 논란이 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광고까지. 이러한 장면들은 미디어에 공기처럼 스며든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보여준다.

폭력에 대한 감수성 결여와, 여성혐오로 범벅된 웹툰을 그리는 작가가 인기 예능프로의 주진행자로 나오는 프로가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적인 웹툰은 자연스럽게 지워지고, 제2의, 제3의 다른 남성들이 ‘남자는 뭘 해도 된다’는 감각을 갖고 여러 미디어를 통해 등장한다.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는 남성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짜인다. 각종 미디어에서는 여성 및 여러 소수자들을 비하하고 혐오하며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리는 장면들을 아무 문제없이 보여 주고, 오히려 편하게 웃으며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다. 이 ‘아무문제 없음’은 남성연대가 만들어내는 강간문화를 더욱 강화시킨다. 여성들이 출연하거나 여성서사 중심의 창작물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귀중하다. 우리는 남성연대 중심의 미디어를 과감히 끊고, 페미니즘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디어를 접해야한다. 그리고 여성 창작자, 여성 서사 중심의 미디어를 ‘덕질’ 해야 한다. 더 이상 남성중심의 창작물들을 보고 싶지 않다. *

‘강간문화’는 비약이 아니다

예전에 남자 선배들, 남자 교수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문화’로 공유했던 것들, 조개, 자궁, 보지, 등을 이용한 농담과 욕들을 생각해 보면 강간문화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카페보다 성매매 업소가 10배나 많은 한국에서 강간이 문화라는 말은 어색하지 않다. 남성들의 견고한 카르텔은 강간문화로 다져진다. 하지만 일각에선 ‘강간문화’라는 단어에 대해 “‘강간’이 문화라니”, “지나친 비약이다”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저항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흠뻑 향유하고 있던 세계를 직면하거나/직면하고싶지 않아서 오는 거부감 때문일 것이다. 이는 자신의 언행들이 ‘강간’과 연결되어있다는 지적을 방어하는 잘못된 전략일 뿐이다.

강간문화는 여성혐오가 고착된 한국사회에서 암묵적으로 강간을 유하게 처리하는 분위기 때문에 생긴 단어이므로 비약이 아닌, ‘현상의 양지화’라고 해야 맞다. 지금까지 성폭력과 수많은 폭력들을 가벼운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실제 폭력을 사소한 일인 양 포장해온 전반적인 흐름이 더 문제다. 강간문화가 비약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가해자 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것이다.

일상 속 당연한 듯이 지나치는 성폭력이 만연한데, 힘과 권력을 가진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느끼는 위협과 차별을 생각한다면 강간문화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문화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권력을 해체하는 것만이 강간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다. *

함께 쓰는 성폭력사전

동의 · 위력 · 강간문화 · 성인지감수성

성인지감수성

성인지감수성은 차별적인 성별규범을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눈입니다. 성별(gender)에 따라 다른 대우를 당연시하는 성차별적 요소들을 민감하게 발견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통찰하는 관점입니다. 기존 제도 내의 성차별적 요소를 인식하고 스스로 발견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입니다. 성별의 차이로 인해 생겨난 일상생활 속에서의 권력불균형과 차별에 민감성을 갖고 변화를 도모하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성별을 기반으로 행해져온 부당한 압력과 억압들, 권력관계에 맞서며 편견을 깨뜨리는 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성별로만 바라보거나 판단하지 않고, 여성도 같은 인간임을 인식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한 관계에서 목소리를 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끊임없는 고민하는 노력입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모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필수적인 인식입니다.

‘지금껏 당연했던 건데, 왜 새삼스럽게?’가 아닌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로 자기의문을 갖는 것, 당연함을 한 번 더 의심할 때 성인지감수성은 작동됩니다. 모든 ‘성’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성별에 근거한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의심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면서 나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단정 짓지 않고 존중하는 정성,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의 맥락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을 통해 발휘될 수 있습니다. 편견에 근거해 함부로 결론내리지 않고, 문제제기를 받았을 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의 의미를 알아차리는 능력,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는 능력, 나와 타인의 성을 매개로 하는 권력의 차이를 포착하며 역사적/구조적으로 권력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현상을 해석하는 능력, 어떤 관계에서든 쌍방향 존중이 흐를 수 있도록 하며 성차별을 중단시키는 능력입니다. 특히 사법정의를 지켜야 하는 법관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능력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은 성별고정관념, 편견을 깨는 장치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저울추를 다시 놓고 각도를 맞추려는 노력 즉, 성평등을 배우기 위해 성차별을 ‘잇는’ 작업: 성차별적 사회의 영향을 받은 나의 지식, 경험, 인식을 원점화(unlearn)함으로써 일상의 차별을 인식하고 한 번 더 생각하기, ‘~니까’, ‘~답게’, ‘~로’, ‘~처럼’ 등의 표현을 쓰지 않는 것으로부터 실천됩니다. 성인지감수성은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입니다. ●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제자에게 성희롱 가해를 해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해임이 과하다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특별2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원심(2심)의 판결이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판단’이라며 파기환송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를 할 때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원심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했다. 이는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 판례는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의 소송 심리와 판단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 그 의미가 깊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

2018. 4. 12. 대법원 판결
선고 2017두74702

‘킹인지 갓수성’ 그 억울함과 분노의 포인트

‘성폭력은 성차별적인 사회적 조건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법원의 판시는 엉뚱하게도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조롱으로 이어졌다.

“감수성으로 재판을 한다니?”, “성폭력 가해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성폭력유죄추정 하겠다는 ‘킹인지 갓수성’이라는 회화는 “여자가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라며 “나만 운 나쁘게 걸렸다”는 남성들의 오래된 비아냥, 억울함과 맥을 같이 한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다”, “유명인, 남자라는 이유로 공격받고 있다”, “미투운동에 편승한 ‘가짜미투’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를 남발했던 영화계, 연극계, 체육계 등 유명인에 의한 성폭력사건들에서도 가해자들의 반응은 한결 같았다.

성폭력 가해자들의 억울함과 분노의 포인트는 ‘당연히 말하지 못하고 참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피해자(여성)가 참지 않고 말했다’는 것에 있다.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성적관계를 예상한 것이다”는 가해자들의 흔한 자기합리화와 “거부하지 못한(할)것,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 등 피해자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으니 누군가에게 이 일을 말하지 못 할 것”라는 예상이 피해자의 말하기(가해자 입장에서는 폭로)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메갈’, ‘꿀페미’, ‘여상상위’, ‘역차별’, ‘남성혐오’, ‘킹인지 갓수성’이라는 딱지붙이기와 조롱은 여성을 동료로 인식하지 않는 성차별주의, 여성혐오일 뿐이다. *

조롱을 대하는 세 가지 방법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전 충남도지가 안희정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에 대해 최종 유죄확정 했다. 하지만 “안희정은 억울하게 처벌 받았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안희정과 같은 행동을 했어도 처벌받지 않았었다”, “이것은 정치적 음모다”라며 여전히 성폭력 가해자 안희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평등한 사회를 향한 사회적 합의와 진실보를 거부하며 “감수성으로 재판을 한다니”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일상 곳곳에서 심심찮게 마주한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이렇게 해보자.

1. ‘감정’과 ‘감수성’을 구분 못하는 경우라면 국립국어원의 감수성의 정의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와 감정의 정의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의 차이를 설명한다.
2. 성폭력에 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성인지감수성’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유죄추정이라며 오역하는 경우라면, 서울고등법원 이숙연 판사의 칼럼을 소개한다.

(중략) 이제 ‘성인지 감수성’은 성희롱, 성폭력 관련 소송의 심리에서 법관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이 되었다. (중략)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대체로 성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으로 풀이된다. 이는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감성’이나 ‘감수성’과 다르며, 특수한 상황에 처한 타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능력’에 가깝다. 법관에게 있어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가 성폭력 등 피해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서 보이는 언동을 그가 처한 물리적, 사회적 성차별 상황의 맥락 하에, 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황의 힘(power of context)’을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사실인정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중략)아무리 희귀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라도 재판 당사자가 되면, 재판부는 2중, 3중의 통역을 구사해서라도 그의 말과 그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언어와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자문하게 된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 당사자의 언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 그 본 뜻을 해석해 줄 사람이나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의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3. 더 이상의 대화를 접고, 그래도 사회의 변화의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아래의 장면들을 읽으며 마음의 평온을 찾고, 성평등한 관계를 지향해 가는 사회적 변화에 반응하고 적응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서도 태될 수밖에 없다는 신념을 기억하자. 그리고 내가 발 딛고 있는 공간에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해 나가는데 에너지를 쓰자. *

그래도 조금씩 진보하고 있다

아동 대상 만화에서 소방관·경찰 등 직업군을 다양한 연령의 여성캐릭터로, 노동단체의 홍보물에서 다양한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이 담겼을 때, 2019년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해 100인이 100초짜리 영화 100편을 찍어 공개하는 프로젝트에서 참여감독 성비를 50:50으로 맞추었을 때, 캡틴마블·알리딘과 같은 주체적인 여성 서사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볼 때, 라이온킹에 대해 ‘남성중심적 시각과 영웅주의 서사는 여전했다’며 성인지적 관점의 보도를 하는 지상파 뉴스를 볼 때 각계각층에서 성별고정관념을 깨트리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누군가가 있음을 확인한다.

“그거 성차별적 발언입니다”라고 단호히 말하는 내 주변의 동료, 직장 내에서 ‘끈적끈적한 시선’에 대해 문제제기했을 때 덮지 않고 성희롱일 수 있다고 판단한 회사, 연극계의 ‘대부’로 군림했던 연출가 이윤택에 의한 성폭력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판 서울고등법원, 2019년 9월 9일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에 대해 ‘위력’ 성폭력 유죄를 확정판 대법원, 2019년 4월 11일 낙태죄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접하며 성차별, 성폭력 등 부정의를 참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했을 때 내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동료와 공동체, 성인지감수성을 견지하려 노력하는 재판부가 있음이 힘이 된다.

단기프로젝트 그룹에서도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는 곳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 공공기업을 중심으로 채용 등 업무와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는 사진, 학력, 출신지, 성별, 가족관계를 적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확대되고 적극적 조치로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성차별과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실천들이 더 많은 공간에서 실험되고 성공하는 경험들로 쌓여가길 바란다. *

여전히 우리에게 성인지감수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늘도 성차별이 만연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
불법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남성연예인에 대해서는 “개
XXX더라”라고 쌍욕하면서, “그 영상 봤냐? 안 봤으면 보내줄게.
몰래 봐.”라며 재유포 할 때, 남성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찍지 마, 보지
마’ 스티커를 붙여놓았더니 여성화장실에도 그 스티커를 붙여놓으며
남녀평등이라고 말할 때, 불기소, 무죄판결 되는 대부분의
성폭력사건들을 볼 때,

여성 아이돌이 게임 속 캐릭터를 재현하는 복장에 대해 ‘과도하게
선정적 의상을 입힌 것 아니냐?’ VS ‘지금이 조선시대냐? 개인의
자유다’는 대립구도만 보도할 뿐 많은 게임 속 여성캐릭터는
천편일률적으로 몸매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복장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해 다루지 않는 언론보도를 볼 때, 밤길에 골목을 걸으는 데 한
여성이 자기를 발견하고 갑자기 빨리 걸어서 너무 불쾌했다며
하소연 하는 남성 상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남자들이 딱 싫어하는 스타일”, “여자로 하나도 안 느껴진다”라며
여성 연예인에 대한 외모 폼평하는 남성 무리를 볼 때,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여성들이 많다”는 성토를 하다가 “남성들이
사고 칠만해”라고 이야기가 마무리 될 때,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네’라는 노래가 재미있는 찬양가로 소비될 때,

“여자는 아기 낳아야 하니까 담배 피면 안 된다”는 동네구멍가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분홍색 피규어를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에게 곁에 있던 또래의 다른 아이가 “왜 여자애들 것을 가지고
노냐?”라며 큰소리로 비웃었지만 주변의 보호자들이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을 때,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여성들은 옮기지

마세요”라며 여성들을 배려하는 척하며 “여직원이 타는 커피가
맛있다”며 성별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때, 나이가 더 많은
오빠의 밥을 나이가 어린 여동생이 차려주는 것을 당연시 할 때,
“여자라서, 전공을 살려 직업을 갖기 힘들 거야”라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교수님을 볼 때...

여기에 미처 적지 못한 일상의 무수한 순간에 ‘차별적인 성별규범을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눈’, 성인지감수성이 필요하다. ●

내 생각을 존중받는 느낌, 불위기상 'No'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전에 대안 모색이 있었던 상황이라
이후에도 후회 없는 거임.

'동의'의 과정이 잘 이루어진
성적 경험을 했다면,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유를
적어주세요.

원래서, 하긴 싫어서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함.

성적 경험 전에 충분한 소통은 가졌고,
경험 과정 중에도 감정과 느낌은 그때 그때마다
이야기했을 때 '동의의 과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느꼈다.

성관계는 거절했으나
상대를 도와주기 위해 한 것이었다.

'동의'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성적 경험을 했다면,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유를
적어주세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없는 것 같다.
"관계성"의 목재가 놓은 무관한 사각이라고
생각 —

"이제 섹스하기 전에
녹음해야겠네", "동의 어플,
동의 계약서라도 써야겠네"...
'동의'에 관한 이런 시각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력 무과 무려우면, 상대방과 신뢰를 쌓고,
'반에 해사'라는 가늠선을 생각한다면,
생소한 생각은 버려라.

'위력'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 해 본다면?

사려리, 리워를 이용하여 생각의 강세,
리움에 레움을 가는 행위

보이지 않는 압력, 옹기 얽음은 안고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존재하는 위력은 반드시 행사된다.

* 위력이란 상대방의 ^{←면역자}비면역자 표현의 이면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야 생존 함수 있다는,
그런 협박을 정당화 하는 폭력.

학교, 직장, 기타 사회적
관계에서 당신이 경험한
'위력'적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학교 동아리 활동에서 선배에게 존댓말을 쓰고
허리숙여서 인사하는 것

교수님이나 노대방 > 있을 때 선배들이
신입생인 나와 교수님의 브루스 강요

- ① 학생과의 사투 때, 목사가 안 물어 보면
사투가 끝나도 물어볼 수 없는 상황.
- ② 믿음을 달리는 일을 내가 주도 할 때.
(상업자는 믿어준다고, 자기가 믿어지지 않음).
- ③ 퇴근할 때 상급자에게 인사하지 않고 가면
분위기가 생김새와 화 두려움.

강간문화가 느껴져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문고는 자신이 뜻 속이 있는지, 정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의 현실을 부정하는 헛소리
는 가지고 있음

동이하리인, 너무나 다양한 세제 곳곳, 시대분류 하게
있는 사건이기에 끊어져야 하는 악습 문화라 말하고 싶다.

의하지 않음.
대한민국도 [←]정신이 강간 문화에 세습되어 있다

'강간문화'라는 말에 대해
'강간이 문화라니',
'지나친 비약이다'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러한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목격한, 경험한,
보고 들은 '강간문화'에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나요?

저는
중학교의 교사입니다.
중학교 교실의 매시간순간들이 강간문화를 보여주는 표현같네요.
ㅁ 수절세없이 이루어지는 여자아이들의 외모평판, 야한 농담따먹기,
개그를 방자한 남자아이들의 성적 대담화...
한국의 남성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강간문화를 배우고,
익히고, 그것이 남성성이라고 착각하며,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정정한 남자아이들을 배제하고 따돌립니다.

폭력을 당한 사냥이 으러져
부끄러워하긴 싫어야 하는데 생각하는 모든 장면들.

'강간문화'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성폭력을 놀이나 여흥감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

남자들의 서벌문화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

여자를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강박관념으로 인식하는 것

교수가 '버닝썬 사건'을 농담으로 이용했는데,
이를 아무도 못지 삼지 않았다

구멍가게 슈퍼 할아버지에게도 필요함.
여성인 내가 담배를 사겠다는데 여자가
애 낳으면 빨리 끊어라니 함 ㅋㅋ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 고 한다.

영성은 남성은 '성'과 관련한 문제에서
성인지감수성이 없다면 외려 피해자를 비난하곤 하더라.

자취방에서 성폭행은 감했다는 사건에 대해

'를 열거했으면 자값만 거지. 여자로 행실이 잘못됐어.' 라고
말한 남후배 & 후배들을 맞지 못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곧 약자에 대한 공감이자 도리이다.

'성인지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상황이 있었나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경험과 그 이유를 들려주세요.

'성인지감수성'이
적용된 좋은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KBS 뉴스에서 라이온킹 리메이크 영화를
보도하며 "남성중심적 시각과 영웅주의 서사는 여전히 많다"고
한 것. (공중파 뉴스에서 너무나 맞는 말을...!)

최근 생리대 광고가 '고날'이라고 돌려말하거나
흰옷, 활동성 등 현실적인 여성의 월경 문제를 미화해서
광고해온 것

'성인지감수성'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감수성

당연함을 한번 더 의심해보는 눈

성평등을 향한 최선의 공감 능력.

이 일상생활에서
성차별감을 느끼고 강하게
반박하는 민중서포